

#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 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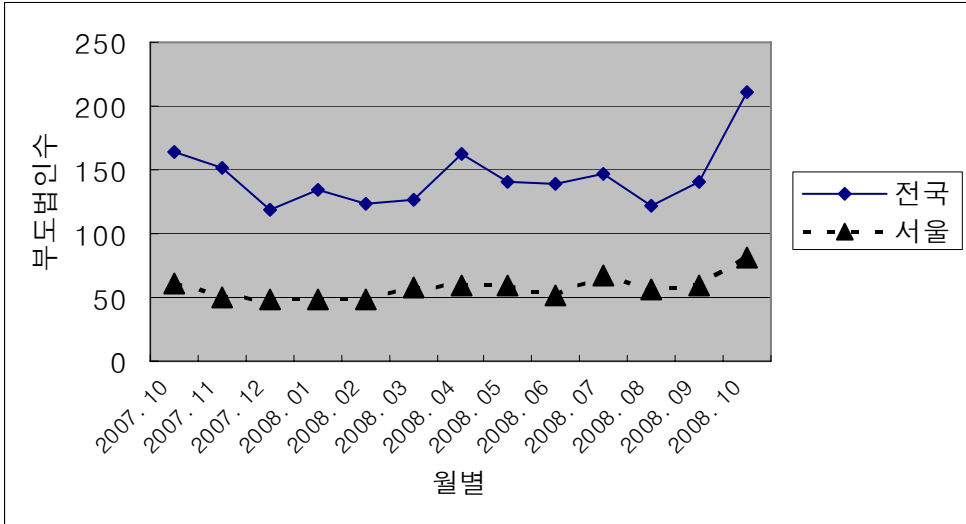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조달호(연구위원 · dhcho@sdi.re.kr)  
이춘화(연구원 · lch128@sdi.re.kr)

## I. 서울의 업종별 부도법인 수 증가

### 1.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 및 내수경기 침체로 부도법인 수 증가

- 최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본격 전이되는 과정을 거쳐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불안을 다시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제조업이 하강하고 유럽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제조업마저 둔화되고 있음
  - 이런 세계경제의 경기침체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부도 가능성 증가
- 전국과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크게 증가
  - 금융위기가 심화된 10월 전국의 부도법인 수는 321개로 전월대비 58.1% 증가, 전년 동월대비 24.4% 증가하였음

-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됨에 따라 서울의 부도법인 수도 10월에 111개에 달하여 전월대비 38.8% 증가, 전년동월대비 42.3%나 증가함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1] 부도법인수 월별 추이

<표 1> 서울시 업종별 부도법인 수 및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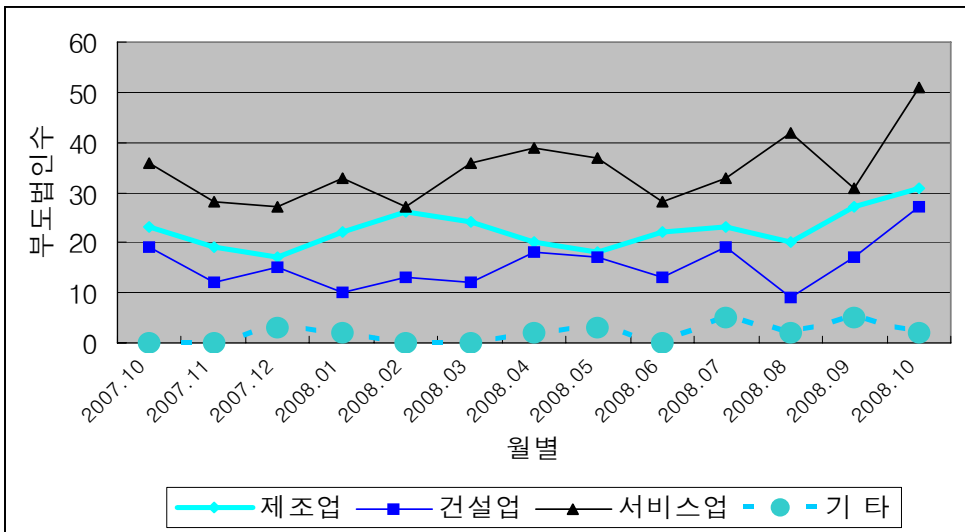
(단위: 개, %)

		2007.10	2008.09	2008.10	전월대비 증감률	동월대비 증감률
전국	제조업	88	66	109	65.2	23.9
	건설업	59	49	65	32.7	10.2
	서비스업	105	74	133	79.7	26.7
	기 타	6	14	14	0.0	133.3
	소 계	258	203	321	58.1	24.4
서울	제조업	23	27	31	14.8	34.8
	건설업	19	17	27	58.8	42.1
	서비스업	36	31	51	64.5	41.7
	기 타	0	5	2	-60.0	-
	소 계	78	80	111	38.8	42.3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2. 서비스업의 증감률 큰 폭 변동, 서울의 전국대비 비중 감소

- 서울의 업종별 부도법인 수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업의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음
- 서비스업의 부도법인은 전월대비 64.5%, 동월대비 41.7% 증가하여 타 업종에 비해 증감률이 가장 크게 나타남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2] 서울의 업종별 부도법인수

- 서울의 부도법인 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
  - 전체 업종에서 서울의 부도법인 수 전국대비 비중은 8월의 41.0%로부터 9월의 39.4%, 10월의 34.6%로 연이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체 업종으로부터 볼 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부도가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시사
  - 반면, 건설업의 부도법인 수 전국대비 비중이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서울의 건설경기 침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하다는 것을 설명함

<표 2> 업종별 부도법인수 추이

(단위: 개)

		07년			08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 국	제조업	88	74	53	64	68	65	78	60	67	56	50	66	109
	건설업	59	50	43	37	40	35	54	38	46	42	35	49	65
	서비스업	105	79	76	85	70	69	94	95	74	97	86	74	133
	기 타1)	6	7	6	7	8	7	8	9	4	14	7	14	14
	소 계	258	210	178	193	186	176	234	202	191	209	178	203	321
서 울	제조업	23	19	17	22	26	24	20	18	22	23	20	27	31
	건설업	19	12	15	10	13	12	18	17	13	19	9	17	27
	서비스업	36	28	27	33	27	36	39	37	28	33	42	31	51
	기 타1)	0	0	3	2	0	0	2	3	0	5	2	5	2
	소 계	78	59	62	67	66	72	79	75	63	80	73	80	111
비 중	제조업	26.1	25.7	32.1	34.4	38.2	36.9	25.6	30.0	32.8	41.1	40.0	40.9	28.4
	건설업	32.2	24.0	34.9	27.0	32.5	34.3	33.3	44.7	28.3	45.2	25.7	34.7	41.5
	서비스업	34.3	35.4	35.5	38.8	38.6	52.2	41.5	38.9	37.8	34.0	48.8	41.9	38.3
	기 타1)	0.0	0.0	50.0	28.6	0.0	0.0	25.0	33.3	0.0	35.7	28.6	35.7	14.3
	소 계	30.2	28.1	34.8	34.7	35.5	40.9	33.8	37.1	33.0	38.3	41.0	39.4	34.6

주: 1) 농수축산업, 광업, 전기가스 등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II. 서울의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월대비 증가

○ 10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25개로 전월의 1,291개에 비해 10.4% 증가하였고 전국도 3,975개로 전월의 3,671개보다 8.3% 증가하였음

- 10월에 9월보다 증가한 것은 계절적 요인(추석명절)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발 금융위기의 확산과 신용위기의 대외악재와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5.2% 감소하였고 전국은 1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의 감소폭이 전국보다 큰 것으로 확인됨

<표 3> 신설법인수 추이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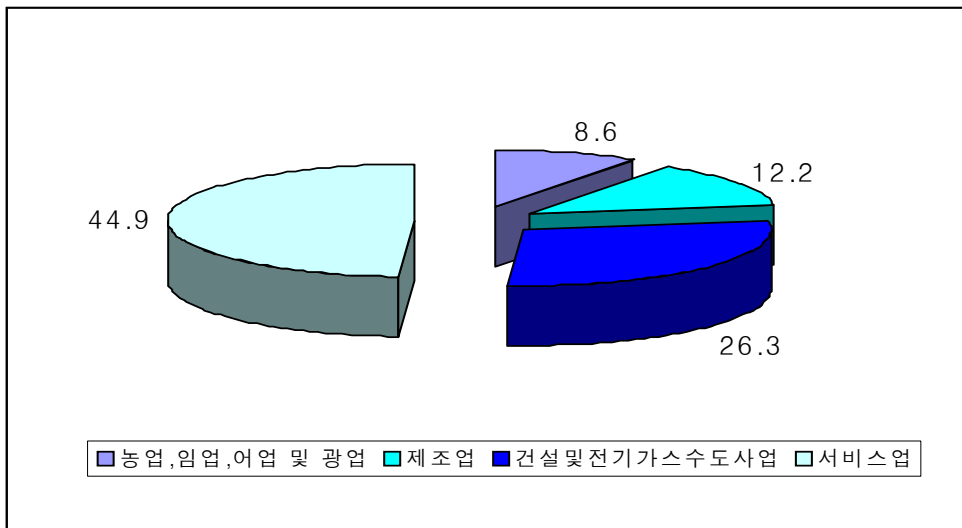
지역	2005	2006	2007		2008			전년 동월 증감률	전월 대비 증감률	전년 누계 증감률	
			1~10	10월	1~10	9월	10월				
서울	20,939 (39.8)	19,801 (39.2)	20,063 (37.5)	16,926 (37.7)	1,680 (36.6)	15,659 (35.8)	1,291 (35.2)	1,425 (35.8)	-15.2	10.4	-7.5
전국	52,587 (100.0)	50,512 (100.0)	53,483 (100.0)	44,846 (100.0)	4,595 (100.0)	43,727 (100.0)	3,671 (100.0)	3,975 (100.0)	-13.5	8.3	-2.5

주 : ( )내는 지역별 신설법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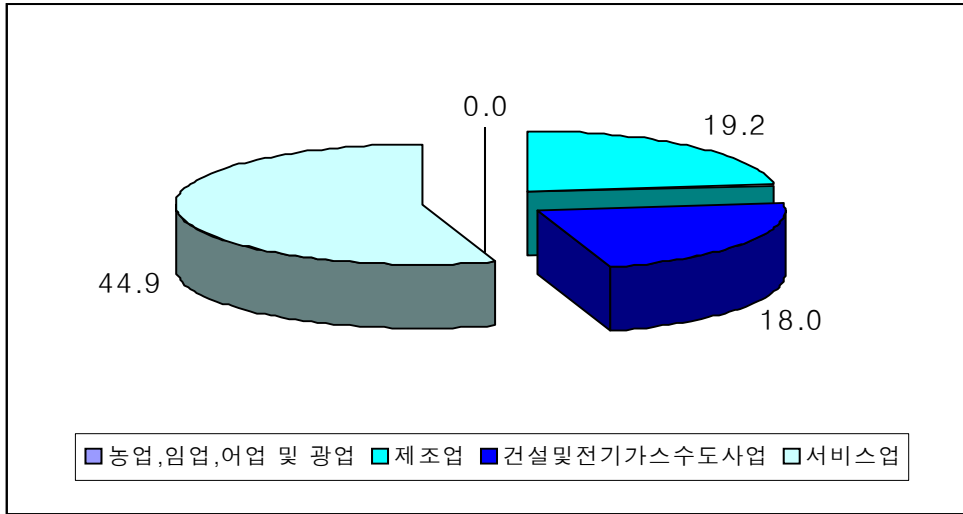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제조업 비중 증가, 건설 및 전기가스 수도사업 비중 감소

- 3월과 10월의 업종별 신설법인 수가 전체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12.2%로부터 19.2%로 증가한 반면, 건설 및 전기가스 수도사업 비중은 26.3%로부터 18.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의 서비스업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림 3] 3월의 업종별 신설법인 비중



[그림 4] 10월의 업종별 신설법인 비중

<표 4> 산업별 신설법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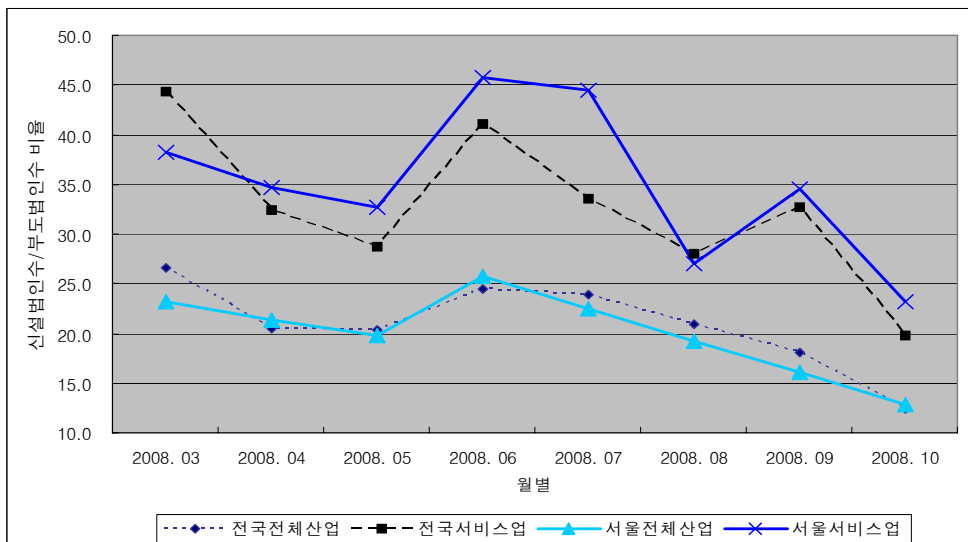
(단위: 개)

지역	산업별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2008.
		03	04	05	06	07	08	09	10
전국	합계	4,670	4,790	4,113	4,662	5,006	3,713	3,671	3,975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58	89	61	61	106	97	48	52
	제조업	829	937	779	942	1,009	742	753	835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720	709	547	624	635	467	451	449
	서비스업	3,063	3,048	2,726	3,035	3,256	2,407	2,419	2,639
서울	합계	1,669	1,687	1,487	1,626	1,794	1,406	1,291	1,425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5	3	4	1	3	9	2	-
	제조업	101	145	128	197	168	140	122	160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189	187	143	149	157	123	98	81
	서비스업	1,374	1,352	1,212	1,279	1,466	1,134	1,069	1,184
비중	합계	35.7	35.2	36.2	34.9	35.8	37.9	35.2	35.8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8.6	3.4	6.6	1.6	2.8	9.3	4.2	-
	제조업	12.2	15.5	16.4	20.9	16.7	18.9	16.2	19.2
	건설 및 전기, 가스, 수도사업	26.3	26.4	26.1	23.9	24.7	26.3	21.7	18.0
	서비스업	44.9	44.4	44.5	42.1	45.0	47.1	44.2	44.9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Ⅲ. 신설법인 수/부도법인 수 비율 감소

- 서울의 전체 산업 신설법인 수/부도법인 수 비율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부도법인 수 비율은 6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전체 산업에서 창업보다 부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됨
- 서울의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부도법인 수 비율의 변동 폭 전체 산업보다 큼
  - 서비스업은 전체 산업에 비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서비스업이 기타 업종에 비해 창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며 소자본 창업이 위주인 서비스업 또한 경기에 민감하여 부도가 쉽게 나기 때문으로 생각됨
- 전국도 서울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냄
  - 전국의 전체산업과 서비스업도 서울과 유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음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그림 5]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비율 추이

〈표 5〉 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 비율 추이

	2008.03	2008.04	2008.05	2008.06	2008.07	2008.08	2008.09	2008.10
전국 전체 산업	26.5	20.5	20.4	24.4	24.0	20.9	18.1	12.4
전국 서비스업	44.4	32.4	28.7	41.0	33.6	28.0	32.7	19.8
서울 전체 산업	23.2	21.4	19.8	25.8	22.4	19.3	16.1	12.8
서울 서비스업	38.2	34.7	32.8	45.7	44.4	27.0	34.5	23.2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IV. 어음부도율 금융위기 속 안정적 추세 유지

○ 어음부도율은 금융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과 서울 모두 어음부도율은 지난해 동 시기부터 현재까지 큰 변동이 없으며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어음부도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2년까지 급속하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부터는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6〉 어음부도율 추이(전자결제 조정후)

(단위: 금액기준, %, %p)

	07년				08년										증감 (B-A)
	연중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A)	10월 (B)	
전국	0.02	0.03	0.04	0.03	0.03	0.02	0.03	0.06	0.04	0.03	0.02	0.02	0.02	0.03	0.01
서울	0.01	0.02	0.03	0.01	0.02	0.01	0.02	0.05	0.03	0.02	0.01	0.02	0.01	0.02	0.01
지방	0.11	0.11	0.13	0.13	0.09	0.09	0.08	0.18	0.16	0.10	0.10	0.06	0.09	0.13	0.04

자료: 한국은행



○ 대기업들의 부도는 아직 현실화 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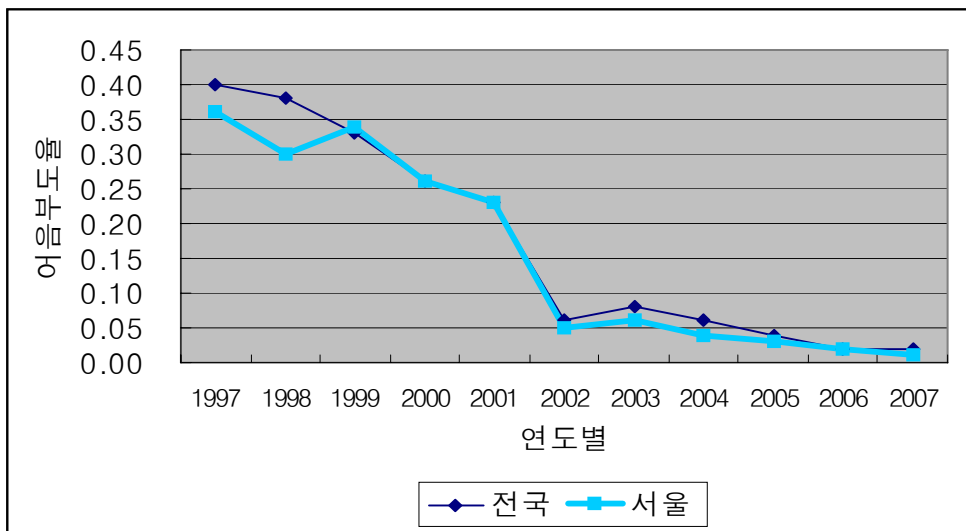
- 앞에서 부도법인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들의 부도가 많은 것으로 보임
- 금액기준으로 나타나는 어음부도율이 금융위기 속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어음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금액 비중이 대기업보다 훨씬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대기업들의 부도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표 7> 어음부도율

(단위: %)

지역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0.4	0.38	0.33	0.26	0.23	0.06	0.08	0.06	0.04	0.02	0.02
서울	0.36	0.3	0.34	0.26	0.23	0.05	0.06	0.04	0.03	0.02	0.01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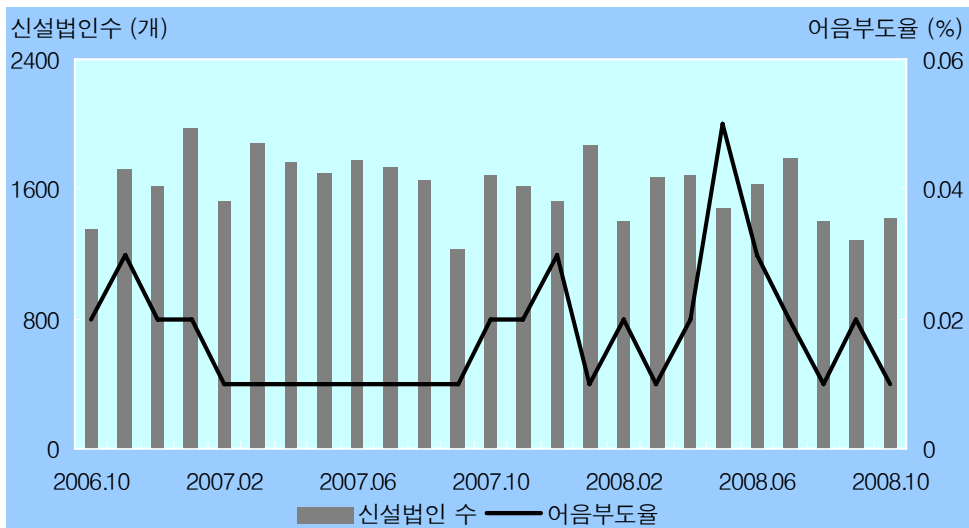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6] 어음부도율 연도별 추이

## V. 실물경기 침체 시작 단계

### ○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들의 부도 가능성 증가

- 글로벌 신용경색 속에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인들은 실업증가와 소득 감소로 부채 상환 부담 능력이 약화되고 기업들은 매출과 수익 감소로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런 금융위기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여 기존 기업의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도 제약을 받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운 상황임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7]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본격화

- 현재까지 대기업의 부도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부도법인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음 부도율은 큰 변동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대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워크아웃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것이 대기업의 부도로 이어진다면 어음부도율까지도 급상승할 우려가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에서 실물경기 침체로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실물경기 침체가 금융 불안을 다시 야기할 위험성 존재
- 경기침체가 가계 부실과 기업 부도로까지 확산되면 실물경제 침체가 금융 불안을 다시 야기하는 위험성도 있음

#### 참고문헌

- 송태정, 글로벌 경제, 위기 수위 높아지나, LGERI 리포트, 2008
- 이성훈,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피어나는 기업가정신, 한국증권연구원, 2008
-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 한국은행
- 황인성, 2008년 한국경제 회고 -금융불안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8